

축구

6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팀 빈 관중석... 씩씩한 동아시간전의 민낯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국과 대만의 여자부 경기가 열렸다. 12월에 흔히 않은 포근한 날씨에도 관중석이 텅 빈 비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 수용 규모를 자랑하지만, 팀 빈 관중석은 황량한 느낌마저 풍긴다. 대회 흥행은 그야말로 초보상이 걸렸다. 부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여자축구대표팀, 동아시아컵 2차전 대만 3-0 격파

부임 2경기 만에 울린 '승리의 벨'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 국대DF 오반석 영입 추진



오반석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본격적인 2020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는 선수이적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해온 전북이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중앙수비수 오반석(31)의 영입을 타진 중이다. K리그 복수의 소식통은 15일 "전북이 올해 태국 프리미어리그 무양통 유니타드에 몸담았던 오반석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원큐 K리그1 2019' 최종 라운드에서 시즌 내내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였던 울산 현대를 2위로 밀어내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새 시즌도 비교적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특히 측면 공격수 로페즈를 제외하면 흥작에 가까웠던 외국인 선수 농사와 올 여름 헨진 헨하이(중국)에서 잠시 친정에 컴백했다가 상주 상무에 입대한 권경원의 공백을 채워야 했다. 이에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과 전북 구단은 K리그 장수 수뇌에서 입대한 또 다른 국가대표 수비수 홍정호의 완전 이적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후방 지킴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롭게 시장에 나온 오반석과 긴밀한 교감을 나눴다.

오반석은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유니타드에 몸담은 그는 K리그 통산 198경기(7골·1도움)를 소화했다. 소속 팀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엔트리(23인)에 뽑혀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알 와슬 유니폼을 입으며 해외 무대를 경험했고, 올해는 무양통(임대)에서 뛰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채림 멀티골·정설빈 썩기골 활약 벨 감독, 과감한 축구로 대만 압박 내일 일본전 대비 11명 전원 교체



한국축구 사상 최초로 여자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외국인 사령탑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이 마침내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여자대표팀은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여자부 2차전에서 역동적인 플레이로 대만을 3-0으로 격파, 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스승에게 소중한 첫 승리를 선물했다.

이로써 한국은 1승1무(승점 4)로, 전날(14일) 중국을 3-0으로 격침시키며 2연승을 내달린 일본(승점 6)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승리는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대만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4개국 가운데 최약체다.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해 차 순위인 대만이 출전권을 얻었다. 아나니 다들까. 대만은 일본과 1차전(11일)에서 0-9로 대패했고, 한국은 중국과 득점 없이 비겼다.

대만을 상대한 벨 감독은 두 가지를 노렸다. 승리는 물론, 선수들의 고된 경기력을 얻으려 했다. 실제로 중국전과 대만전의 베스트 라인업은 전혀 달랐다. 골키퍼를 비롯한 11명 전원을 교체해 이틀 뒤(17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질 일본과의 운명의 라이벌전을 대비했다.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국은 2005년 초대 대회(여자부 기준)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다.

한국은 대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웠



폴린 벨 감독(왼쪽)과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대만전에서 승리한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부산 | 김민성 기자

다.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상대 공간을 파고들었다. 첫 골은 전반 29분 터졌다. 전은하(경주 한수원)의 슛을 골키퍼가 막아내자 올 4월 A매치에 데뷔한 '샷벨' 강채림(인천 현대제철)이 밀어 넣어 골네트를 갈랐다.

후반에도 주도권을 쥐 한국은 쉽게 공세를 가했다. 추가골은 후반 25분 나

왔다. 권은숙(수원 도시공사)의 패스를 받은 강채림이 다시 골 망을 흔들었다. 2-0에서도 한국은 계속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후반 43분 정설빈(현대제철)이 썩기를 박으며 기다린 '승리의 벨'을 울렸다. "(첫 기)빠요. 조금 긴장했어요"라는 인상적인 한국어 소감을 전한 벨 감독은 "오늘 우리 A매치에 두 명(전하늘·추효주)이 데뷔했다. 변화를 고려할 때 경기력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1 챔피언십은 태극남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무대다. 내년 2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앞둔 테스트 대회이기 때문이다. 직선적인 플레이로 이기는 축구를 지향하는 벨 감독은 다가올 한일전도 과감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애당초 무리수였던 女월드컵 남북 공동개최...결국 무산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제출 마지막 날인 13일, 유치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핵심은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이 불발됐다는 점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신청을 했다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FIFA도 공동개최에 방점을 찍으면서 유치 신청을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남북 관계 탓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유치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자월드컵 유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일이다. 2019

아시아컵 결승전이 열린 2월 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제안한 게 발단이였다. 즉, FIFA의 큰 그림 중 하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힘을 실어주면서 올림픽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듯, FIFA도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의 화해에 축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과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한국은 4월에 일단 단독으로 유치신청서를 냈다. 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2023년 아시아컵은 포기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한국과 FIFA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은 아무런 반

응을 보이지 않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북한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관심도 없던 북한을 공동개최하는 명분으로 끌어들이는 게 잘못이었다.

이런 와중에 FIFA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이었다. 이날 경기는 '깜짝이'와 '무관중'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지켜본 인판티노 회장은 큰 실망과 함께 공동 개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축구협회는 차선책으로 단독 개최를 추

진하러 했으나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FIFA는 기존의 LOC(개최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회조직위원회)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이번 대회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또 FIFA가 시설요구사항을 남자월드컵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높인 것도 장애가 됐다고 축구협회는 전했다.

돌아보면 애당초 무리수였던 대회였다. 자의에 의한 유치 추진도 아닌데다, 북한을 괜히 끌어들이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한 모양새만 우습게 됐다. 역지로 남북 공동이라는 명분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끌어들이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남자프로농구 <15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1	SK	22	16	6	0.727
2	KT	22	13	9	0.591
3	인삼공사	22	13	9	0.591
4	KCC	23	13	10	0.565
5	DB	22	12	10	0.545
6	전차랜드	22	12	10	0.545
7	삼성	23	9	14	0.391
8	모비스	22	8	14	0.364
9	LG	22	8	14	0.364
10	오리온	22	7	15	0.318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팀	득점	순위	팀	블로킹
1	이재영	364	1	양효진	0.75
2	리승	361	2	한수지	0.69
3	박정호	287	3	김수지	0.66
4	박정호	275	4	김세영	0.63

*경기결과					
현대모비스	69	71	KCC	(13승10패)	
전차랜드	86	78	삼성	(9승14패)	
오리온	73	82	DB	(12승10패)	
SK	76	71	인삼공사	(13승9패)	

프로배구 <15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1	현대건설	14	11	3	30
2	GS칼텍스	14	9	5	28
3	한국생명	14	8	6	27
4	도로공사	14	5	9	16
5	인삼공사	14	5	9	13
6	IBK기업은행	14	4	10	12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1	이재영	인삼공사	434	1	양효진
2	리승	GS칼텍스	361	2	한수지
3	박정호	IBK기업은행	287	3	김수지
4	박정호	도로공사	275	4	김세영

*경기결과					
인삼공사	1	3	현대건설	(11승3패)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1	대한항공	16	12	4	33
2	우리카드	16	10	6	28
3	현대캐피탈	16	9	7	27
4	OK저축은행	16	9	7	26
5	삼성화재	17	8	9	26
6	KB손해보험	16	4	12	15
7	한국전력	15	4	11	13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1	비에니	대한항공	419	1	김홍정
2	가빈	한국전력	346	2	신영석
3	펠리페	우리카드	279	3	박상하
4	송영근	OK저축은행	277	4	최민호
5	나경복	우리카드	267	5	김규민

*경기결과					
대한항공	3	0	삼성화재	(8승9패)	

*해외축구 <15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번리 1-0 뉴캐슬	본머스 1-0 첼시			
레스터시티 1-1 노리치시티	리버풀 2-0 왓포드				
웨스트햄 1-0 사우스햄튼	세필드Utd. 2-0 애스턴빌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바이에른뮌헨 6-1 브레멘	라이프치히 3-0 뒤셀도르프				
헤르타베를린 1-0 프라이부르크	뮌헨 2-0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4-0 마인츠05	파더보른07 1-1 유니온베를린				

*세리에A 경기결과					
브레시아 3-0 레제	삼프도리아 1-0 제노아				
파르마 2-1 나폴리					

NBA <15일>					
*경기결과					
시카고	109-106	LAC	마이애미	122-118	달러스
디트로이트	115-107	휴스턴	밀워키	125-108	클리블랜드
토론토	110-102	브루클린	멤피스	128-111	워싱턴
덴버	110-102	오klahoma	샌안토니오	121-119	피닉스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16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신한은행 <인천도원>	BNK 썬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6일>					
농구	*2019-2020 KBL D리그 1차(연세대)				
SK-성무(오후5시), KCC-전차랜드(오후7시)					
배드민턴	*2019 BWF 배드민턴 월드투어 파이널(중국 광주)				

*오늘의 토토 <16일>					
농구도토 W매치 94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16 (월) 19:00	신한은행 vs BNK썬	인천도원시립체육관		